

# 트와이스, '데뷔 5주년'... 'K팝 간판 걸그룹' 눈부신 성장사

JYP서 2015년 10월20일 '우아하게' 데뷔

일본에서 독보적 인기→미국 진출 시도

26일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 발매

정연, 정규 2집 활동 불참... '아쉬운 소식'

그룹 '트와이스'가 오는 20일 데뷔 5주년을 맞는다.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누리는 K팝 간판 걸그룹 중 한 팀이다.

'걸그룹 장인'으로 통하는 프로듀서 박진영이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CCO)를 맡고 있는 '걸그룹 명가' JYP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내놓은 걸그룹이다.

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썬우 등으로 구성된 9인조 그룹 트와이스는 JYP 걸그룹의 기존 색깔을 벗어나 주목 받았다. 2000년대 후반을 풍미한 톱그룹 '원더걸스'의 복고도, 데뷔곡 '베드 걸'로 단숨에 정상에 오른 걸그룹 '미스 에이'이 에크라베틱한 퍼포먼스와도 결이 달랐다.

데뷔 초창기 트와이스는 2015년 10월20일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에 집약돼 있는, 컬러팝을 내세웠다. 밝고 경쾌하며 에너지 넘치고 구김살 없는 음악 색깔이 멤버들에게 그대로 물어났다.

'틴팝(teen pop)'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10대를 타킷으로 한 음악으로 10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별칭도 귀염성인 강조된 '트등이들'이었다.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라는 수식에서 보듯, 아홉 멤버들의 외모에도 방점이 찍혔다.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4월 발매한 미니 7집 '펜시 유'부터였다. 트와이스의 대표 히트곡을 탄생시킨 블랙아이드 필승과 전군이 작곡과 작사를 맡은 타이틀곡 '펜시 유'는 이전 곡들과 달랐다. 트렌디한 감성과 우아한 플루트 사운드가 조화된 '멜로우 무드 팝' 댄스곡이다.

노랫말 분위기와 무대 정서도 바뀌었다.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 "지금 너에게로 갈래" 등의 노랫말과 함께 그동안 발달한 트와이스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발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특기할 만하다. 일사불란했지만 상큼했던 안무도 파워풀한 군무로 변신했다. '걸 크러시'의 끝판왕'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최근작으로 지난 6월1일 발매한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에서는 이런 성향이 좀 더 세련되게 변주됐다. 모모는 이 앨범에 대해 "나는 너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원해!"를 표현한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트와이스의 인기는 앨범 판매량에서도 증명된다. 국내에서 발매한 트와이스의 음반 누적 판매량은 520만장을 넘겼다. 그룹 통산 106번째 음악 방송 1위를 거머쥐며, 걸그룹 최다 음방 1위 기록도 가지고 있다.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트와이스는 지난해에 북아메리카에서 투어를 돌아 4만1000명을 끌어 모았다.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 거둔 쾌거다. 세계적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 그룹 산하의 리퍼블릭 레코드(Republic Records)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하고 미국 진출 본격화를 준비하고 있다.

'모어 앤드 모어'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에서 200위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앞두고 청신호를 켜고 있다. 지난 8월9일네이버 브이 라이브를 통해 펼친 유료 온라인 공연 '비온드 라이브 - 트와이스 : 월드 인 어 데이'는 126개국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펜시 유' 앨범에서 영국 팝스타 찰리 XCX가 작곡과 편곡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던 '걸스 라이크 어스에 이어 발매를 앞둔 두 번째 정규 앨범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 수록곡 '비하인드 더 마스크(BEHIND THE MASK)'를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작곡하는 등 해외 팝스타와 협업도 늘려가고 있다.

일본인 멤버 사나, 모모, 미나가 포함된 트와이스의 일본 내 인기는 독보적이다.

지난 9월 일본 베스트 3집 '헤시태그트와이스(#TWICE3)'로 오리콘 주간 앨범차트 1위를 차지, 해당 차트에서 통산 7번째 정상에 올랐다.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서 최다 1위 기록이다.

또 2017년 6월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헤시태그 트와이스'를 시작으로 올해 7월

'팡파르(Fanfare)'까지 현지에서 발매한 10장의 앨범을 연속으로 플래티넘(25만장 이상 판매량)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트와이스는 오는 11월 18일 일본에서 일곱 번째 싱글 '베터(BETTER)'를 발표, 기록 행진을 이어간다.

특히 트와이스는 일본 10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한류 관계자는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트와이스 따라하기가 자신들의 어른스러움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JYP와 소니뮤직이 협업한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된 팀으로 공식 데뷔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그룹 '니쥬'는 트와이스의 분위기와 정서를 이어 받았다.

## ◆힘들어도

트와이스는 지난 4월29일 K팝 걸그룹 최초로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 '트와이스: 시즈 더 라이트(TWICE: Seize the Light)'를 세계 81개 지역에 공개했다.

멤버들은 무대 밖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단순히 자신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나를 보여주기보다, 힘든 일을 어떻게 함께 극복하고 기쁜 일 있을 때 어떻게 함께 웃었는지에 대해 보여줬다.

트와이스 다현은 "저희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트와이스는 오는 26일 발매하는 두 번째 정규 음반 '아이즈 와이드 오픈' 발매를 앞두고 아쉬운 소식을 전했다.

멤버 정연이 심리 불안과 건강상의 이유로 정규 2집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앞서 미나도 건강 등으로 인해 잠시 팀 활동에 빠졌지만 멤버들과 팬덤 '원스', JYP의 지원에 힘 입어 성공적으로 팀에 복귀했다. 정연에 대해서도 멤버들, 원스, JYP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트와이스는 오는 20일 데뷔 5주년을 앞두고 기념 이벤트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데뷔 5주년을 기념해 JYP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 '원스 어폰 어 트와이스, 5 이어스(ONCE upon a TWICE, 5 Years)'가 큰 호응을 얻었다.

멤버들은 데뷔하던 날을 떠올리며 "응원이 나오는 날, 멤버들과 다 함께 숙소에서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발매 시간에 맞춰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다. 연습하면서 고



생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서 그랬는지 많이 울었던 것 같다. 그때의 그 벽장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며 추억을 회상했다.

또 첫 무대와 단독 콘서트, 월드투어 등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하면서 느낀 뿌듯함을 전하며, 'K팝 대표 걸그룹'이 되기까지 쉽지가 달려온 시간을 되짚어 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룹을 향한 남다른 애정이 아낌없이 담겨 있었다. "트와이스는 트와이스"라고 정의 내리며 지난 5년간 쌓아 온 명성과 존재감에 대해 자부했다.

"트와이스는 곧 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때려야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준 멤버들은 혼자였으면 버티지 못할 순간을 견디게 해줬고, 원스(ONCE: 팬덤명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줬다.)"

트와이스는 데뷔 5주년 하루 전날인 오는 19일 오후 10시20분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와 유튜브를 통해 '트와이스 5주년 기념 스페셜 라이브 - 위드'(TWICE 5th Anniversary Special Live - WITH)'를 선보인 다.

## “코로나19 장기화에”...CGV, 26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

이코노미·스탠다드·프라임 좌석 차등제 폐지

CGV 영화 관람료가 26일부터 인상된다. 18일 CJ CGV 측은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됐던 좌석 차등제는 폐지한다.

다만 고객 편의를 고려해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간대는 고객들이 보다 적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3단계(모닝, 브런치, 일반)로 단순화한다.

특별관 요금도 조정된다. 4DX와 IMAX 관람료는 인상되는 반면,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된다. 스크린 X와 씨네&포레, 씨네드레프트, 골드클래스는 요금 변동이 없다.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지뽕' 행사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극장 임차료 및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올해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함께

방역비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게 CGV 측의 설명이다.

CGV 관계자는 “올해 관객 수와 매출이 대폭 급감한 가운데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돼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컸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 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영화산업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함으로써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환불원정대, '돈 터치 미' LP 발매

일주일간 예약 판매

MBC TV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환불원정대'의 데뷔앨범이 7인치 LP로 출시된다. '놀면 뭐하니?' 측은 17일부터 일주일간 예약판매하며, 판매 수익은 모두 기부에 쓰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LP에는 환불원정대의 데뷔곡 '돈 터치 미'와 노래의 비트가 담긴 음원이 들어있다. 나전철기와 호랑이가 그려진 디자인이 눈에 띈다.

LP를 구매하면 환불원정대 멤버들의 사진과 함께 가사지, 레코드를 보호하는 그림인 버틀러, LP 발매 기념 특별 사진을 준다.

'놀면 뭐하니?' 측은 예약 판매 이후 구매 고객 100명을 임의로 뽑아 100% 환불을 제공하



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미스터트롯: 더 무비', 22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

TOP6의 '대국민 감사콘서트' 비하인드 스토리 담은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가 22일 개봉을 앞두고 파이널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 영화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TOP6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영화다.

앞서 론칭 예고편으로 콘서트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미스터트롯: 더 무비',

이번에는 TOP6의 인터뷰, 1박 2일 MT 현장까지 담긴 파이널 예고편을 공개하며 개봉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파이널 예고편 속 TOP6는 꿈의 무대에서 다시 한번 노래를 향한 간절함을 깨닫고, 팬들과 함께한 감사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등 진솔한 모습으로 영화에 감동을 더한다.

22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뉴스



## 뉴이스트, 내달 온라인 팬미팅 '러브 페이지' 개최

그룹 뉴이스트(JR, 아론, 백호, 민현, 렌)가 오는 11월 팬클럽 '러브(LO.A.E)'와 새로운 추억을 쌓는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뉴이스트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1월 28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앞두고 있는 팬미팅 '2020 뉴이스트 팬 미팅 '러브 페이지'

- 온라인(2020 NU'EST FAN MEETING 'LO.A.E PAGE' - ONLINE)' 개최 공지 포스터를 16일 공개했다. 2019년 팬미팅 이후 약 1년 만이다.

공개된 포스터 속 뉴이스트는 가을의 포근함을 담은 스물륙 스타일링과 세련된 비주얼로 눈길을 끈다.

이번 팬미팅은 '뉴니버시티'라는 한 대학교의 축제에 팬클럽 '러브'를 초대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매 팬미팅마다 색다른 무대와 코너를 준비하며 전 세계 각 지역 팬들을 매료시킨 뉴이스트는 이번에도 '러브 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